

“청년의 시각으로 평화공존의 현장을 전하다”

- 통일부 청년 기자단(유니콘) 제19기 발대식 및 제18기 해단식 개최 -

- 통일부는 5월 22일(금), 남북회담본부에서 통일부 청년 기자단(이하 ‘유니콘’) 제19기 발대식과 제18기 해단식을 개최했다.
 - 2008년 상생기자단으로 출범하여 올해 19기를 맞이한 유니콘(unicorn)은 ‘통일의 씨앗(unification-corn)’이라는 의미를 담은 통일부 청년 기자단으로, 젊은 세대의 평화공존과 통일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넓히고, 참여를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.
 - 이번 발대식 및 해단식에는 제19기 유니콘 35명(총 40명), 제18기 유니콘 20명(총 수료자 29명)이 참석했다.
-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본 행사에서 제19기 유니콘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, 1년간 성실하게 활동해 온 제18기 유니콘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.
 - 또한, 김 차관은 제18기 유니콘 중 우수한 활동을 수행한 기자들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, 이후 제18기·제19기 유니콘과 함께 평화공존과 통일 문제를 주제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.
- 제19기 유니콘은 평화와 통일 문제에 관심 있는 청년 40명(국내 36명, 해외 4명)으로 구성되었으며,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쳐 선발했다. 활동 기간은 2026년 5월부터 2027년 4월까지이다.
 - 이들은 평화와 통일 관련 각종 행사 참여, 평화공존 정책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고, 직접 취재해서 작성한 기사를 통일부 공식 블로그에 게재할 예정이다.
 - 제19기 유니콘 대표로 위촉장을 받는 김건욱 기자(고려대학교 통일외교안보전공)는 “청년들의 시선과 생각을 담아낼 수 있는 기사를 통해 미래 세대의 평화통일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싶다”라고 활동 포부를 밝혔다.

□ 한편, 제18기 유니콘은 2025년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 1년간 펼쳐온 다양한 활동을 마무리했다.

【 제18기 유니콘 활동 소감 】

성명(소속)	활동 소감
공세현 (동국대학교 정치행정학부 북한학전공)	“동기들과 한반도 평화를 취재하며, ‘청년세대는 통일에 관심이 없다’라고 단정하는 시선이 새로운 관심을 가로막는 고정관념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. 또 통일이란 다름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닌, 다름을 이해하는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것임을 배웠다.”
박채은 (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)	“내가 만든 콘텐츠를 통해 시민들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어 기뻐다. 유니콘으로 활동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다.”
이현림 (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 정보공학과)	“유니콘 기자단 활동은 통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, 통일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는 시간이었다. 다양한 현장을 취재하며 통일에 관심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낼 수 있었고, 통일을 청년의 시선으로 전할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.”

□ 통일부는 본 행사에 앞서, 제19기 유니콘을 대상으로 ‘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’, ‘글 기사 작성법’ 등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.

○ 행사 이후에는 1박 2일 워크숍으로 국립6.25전쟁납북자기념관, 남북 산림협력센터 등 정책현장 견학을 진행할 예정이다.

□ 통일부는 유니콘이 젊은 세대의 평화공존과 통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데에 기여해줄 것으로 기대하며, 1년간의 활동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.

붙임 : 행사 사진(별도 첨부)

담당 부서	대변인실 홍보담당관실	책임자	과 장	윤여전 (02-2100-5737)
		담당자	주무관	윤영혜 (02-2100-5741)

